

## 창단 10년 맞은 희망의 노래 꽃다지

꽃다지는 막 이사를 했다. 20여 평 남짓한 영등포시장 작업실은 10주년 공연준비를 위해 오가야 하는 30명 넘는 사람을 담기에는 너무 좁았다고 한다. 결국 영상패 '전야'의 김성일씨 소개로 40여 평의 새 사무실을 구로 쪽으로 얻었다. 구로 사무실을 찾았을 때는 이사한지 한달이 못된 터라 한껏 부산했다. 그 부산함은 이사뒤 끝과 함께 보름 앞으로 다가온 10주년 기념공연 준비 덕으로 더욱 그랬다.

꽃다지는 활동으로 보자면 15살 가까이 되지만, 그 이름 얻고 본격적 활동을 시작한 날은 1992년 3월 첫날이기에 올해로 10살이다.

87년 민주화 대투쟁 이후 얻고 연달던 노동자들의 투쟁. 그 현장에서 노동자들은 자신들의 노래를 원했고 노동자들의 노래를 부르기 위해 노래패들이 활발히 조직되었다.



“ 노동자들이 바라보고 들어주지 않았다면 존재할 수 없었다. 노동자들이 힘 얻는 모습 덕에 활동할 수 있었다. 그리고 그 힘으로 앞으로 또 10년을 살아갈 것이다 ”

이 중 노동자노래단(노노단)과 삶의 노래 예울림(예울림)도 노동자들의 노래를 창작하고 보급하기를 원했다. 노노단은 구로지역을 중심으로 김호철·김애영·류금신 등이 88년 하반기에 1집 '총파업가'를 제작하면서 출발하였고 예울림은 대학 노래패 출신인 안중호·조민하·유인혁·이은진 등이 당시 상황에 필요한 노래활동을 모색 중에 준비되어 오다 89년 3월 최루탄부상자협의회 주최의 '4,5,6, 그리고 7,8'이라는 공연을 하면서 정식 발족했다.

두 단체는 각각 노동현장에 파업지원과 집회 등에 초청되어 다양한 활동을 벌여갔다. 그러면서 맞은 90년도의 노동정세는 보다 폭넓고 일상적으로 변화했기에 일상공간에서도 함께 부를 수 있는 다양한 노래 등이 고민될 수밖에 없었다. 두 노래패는 그런 고민으로 통합을 논의하기 시작했고 91년 12월 노노단과 예울림

“노동가요가 더 이상 집회에서만 불려지는 노래가 아닌 삶의 현장 곳곳에서 밀접하게 함께하는 것임을 보여야 했고 그러기 위해 꽃다지를 공식화 시키는 것이 필요했다”



의 합동공연 '평등한 세상, 평화로운 땅, 아름다운 노래' 공연 이후 1992년 3월 1일 '희망의 노래, 꽃다지' 이름으로 창단을 선언한다.

성산동에 첫 작업실을 마련한 꽃다지는 연주, 기획, 노래 세 파트로 구성해 활동하였고(이후 연주는 세션으로 정리되면서 노래와 기획 두 파트로 구성), 98년 8월초 1집 음반(비합법)을 제작, 다음해 9월 음반 발매기념으로 연세대학교 대강당에서 '좌표 1992' 공연을 갖고 본격적 활동을 시작한다.

이렇게 시작된 꽃다지는 많은 변화와 사건을 겪는다.

이은진씨는 꽃다지의 맏언니다. 예울림 활동을 시작으로 꽃다지 창단멤버고, 또한 꽃다지의 대표로 활동하다 구속되기도 한 산증인이다. 창단당시 그녀가 스물일곱이었으니 지금은 서른일곱이다. 은진씨에게 꽃다지란 그녀의 청춘과 같기에 꽃다지 십년살이의 기억이 새롭고 그 감회가 가득하였다.

“우선 물난리가 기억에 남죠. 사무실을 4번 옮겼는데 어디서든지 꼭 물난리를 겪었죠. 심지어 겨울에 수도가 터져 물바다가 되기도 했구요. 사무실이 지상이건 지하건, 여름이건 겨울이건 상관하지 않고 꼭 물난리를 겪은 셈이에요.”

현재 그녀는 <시민의 신문>에 꽃다지 10년을 연재 중에 있는데 연재 첫 회에 이 물난리 사건을 꼽을

만큼 속을 많이 썩은 모양이다.

하지만 꽃다지가 속을 참으로 심하게 앓았던 때는 92년 대선 이후였다. 92년 겨울, 대통령선거를 지나면서 혼란스럽던 정세만큼 내부에서도 다양한 정치적 의견들로 나뉘게 된다. 치열한 논의를 거치고 나서야 꽃다지는 남은 사람들로 다시 추슬러 일어나게 된다. 이 과정이 길고도 힘들었음을 보여주듯 이후 나오는 2집 음반의 곡들은 1집에 비해 보다 내면을 성찰하고 동지애를 돌아보는 노래들로 채워지게 된다. 이때의 노래들이 <전화카드 한 장>, <바위처럼>, <창살아래 사랑아> 등이다.

이렇게 92년 겨울을 힘들게 보낸 후 꽃다지는 음악적 길이와 들이를 넓힌 성과를 바탕으로 노동가요로는 최초로 합법음반 발매라는 개가를 올리게 된다. 당시 기획실장이던 은진씨는 “노동가요가 더 이상 집회에서만 불려지는 노래가 아닌 삶의 현장 곳곳에서 밀접하게 함께하는 것임을 보여야 했고 그러기 위해 꽃다지를 공식화 시키는 것이 필요했다”며, “정태춘 선배의 심의거부를 통한 공운 철폐 투쟁과 함께 제도개선을 위한 또 다른 방식의 투쟁이었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공연윤리위에서 거의 전면 수정을 요구했던 '단결 투쟁가' 까지 수정없이 통과되었고 마침내 94년 5월 31일 시청 앞 마당세실극장에서 합법음반 발매기념 콘서트 '민들레처럼' 을 올리며 이를 마무리하였다.



“꽃다지의 변화는 바로 노동가요의 변화였고, 노동가요의 변화는 바로 투쟁의 중심축 변화의 반영이었습니다”

“개인적으로도 큰 사건이었죠. 하지만 밖에서 단원들이 열심히 싸워줬기에 힘내서 건딜 수 있었습니다. 되레 이 사건 이후로 일본 공연도 하는 등 더욱 활발히 활동하게 되었죠”

96년, 느닷없이 닥친 국가보안법 위반혐의로 94년부터 대표직을 맡았던 이은진씨가 구속되었다. 민중가요 노래책에 북한을 찬양하는 노래를 수록했

10주년 공연준비로 한창인 꽃다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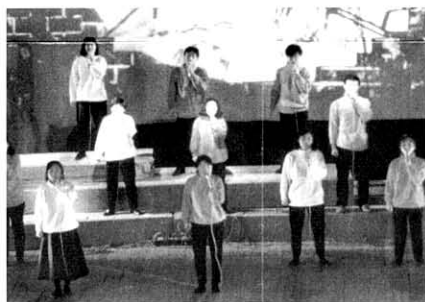
다는 이유로 책을 출판한 출판사 사장과 함께 꽃다지 대표가 구속된 것이다. 그러나 은진씨의 말처럼 ‘국가보안법 철폐! 구속문화예술인 석방! 완전한 예술창작표현의 자유쟁취!’를 내걸고 50일간 탑골공원 앞에서, 민예총 사무실에서 선전공연과 농성을 벌인 단원들의 노력 끝에 50일만에 보석 석방되었다. 또 거리공연을 펼치는 동안 일본 노총관계자와의 인연으로 일본 노동절 행사에 참여, 공연도 하게 되었다.

97년 노동법 개정을 위한 총파업을 거치며 발매한 2집 음반 ‘사람이 꽃보다 아름다워’, 98년 조직발전위원회를 구성하고 조직체계 정리 끝에 99년 가을에 발표한 3집 ‘진주’ 까지 이제 꽃다지는 총 3집의 음반과 세 개의 싱글음반을 발표한 10년 역사의 노동가요 노래패로 여기에 있다.

그 10년 사이, 꽃다지 음악의 변화를 물었다.

“꽃다지의 변화는 바로 노동가요의 변화였고, 노동가요의 변화는 바로 투쟁의 중심축 변화의 반영이었습니다. 노동가요는 경공업 여성노동자의 이야기를 담은 노래로 시작하여 본격적인 노동자 투쟁을 거치면서 대공장 남성노동자의 선곡은 노래로 표현되었고 이후 사무직 노동자들까지 이 대열에 서면서 밝고 당찬 노래들이 불러졌구요. 그리고 이제 노래 형식이나 가사말을 넘어서 다양해

가끔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는 꽃다지 노래를 들으며 생활의 노래를 원했던 꽃다지의 바람이 이뤄지고 있는가하는 생각도 스친다. 노래가 넓다는 것을 보였고 대중가요가 남녀의 사랑만을 담은 노래에 꽃다지는 삶을 더 많이 담아냈으니 말이다.



지고 있음은 운동의 폭이 넓어진 것과 같은 맥이라고 봅니다.”

은진씨 말처럼 노동자가 주인 되어갔던 그 역사의 흐름이 바로 꽃다지가 따라 흐른 물살이었다.

가끔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는 꽃다지 노래를 들으며 생활의 노래를 원했던 꽃다지의 바람이 이뤄지고 있는가하는 생각도 스친다. 노래가 넓다는 것을 보였고 대중가요가 남녀의 사랑만을 담은 노래에 꽃다지는 삶을 더 많이 담아냈으니 말이다.

현재 6명의 단원과 2명의 기획자가 꾸러가는 꽃다지지만, 10주년 공연은 그들 여덟의 공연이 아닌 꽃다지를 거친 100여명의 전·현 멤버가 같이 만들고 있다. 멤버교체가 많았던 10년 역사는 몇몇 단원만의 역사일 수는 없다는 것이다. 그 역사를 점점이 채우고 있는 모든 꽃다지 멤버들과 행사 전체를 함께 만드는 것은 바로 그런 의미에서다.

공연을 위해 하나 둘 모인 선배들은 벌써 10년임에 감격하고 여전함에 고마워하면서 고생시절 이야기를 지치지도 않고 풀어놓는다고 한다.

현재는 김애영씨를 위원장으로 10주년 기념사업 추진위원회를 꾸리고 본격적인 준비에 들어갔으며 기념콘서트, 기념음반 발매, 노동가요 역사정리 등을 기획하고 있다. 기념공연 장소는 10년 전 첫 공연한 그 장소 연세대 대강당이다.

마지막으로, 10년을 들어주고 보여주었기에 고맙고 또 고마울 뿐이라는 꽃다지의 감회다.

“노동자들이 바라보고 들어주지 않았다면 존재할 수 없었다. 물론 10년 전과 여전한 공연비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 뒤잇는 사람을 찾고 함께하기 어려운 점 등 여러 어려움이 있었지만, 노동자들이 힘 얻는 모습 덕분에 활동할 수 있었다. 그리고 그 힘으로 앞으로 또 10년을 살아갈 것이다.”

